

문제 1

1. 일단 발문에 따르면, 문제는 제시문 (가) (나)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 제시문 (다)의 아킬레우스의 태도를 대응해야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와 (나)에 대한 비교가 없음으로써 발문 불이행으로 이것 하나만으로도 합격은 나머지를 완벽하게 쓰지않는 이상 힘들 수 있습니다. 형식상으로도 잘못되었으며, 형식상 틀린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시문 (가)는 공감 이 없지만, 제시문 (나)는 공감이 있고, 제시문 (다)는 공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제시문 오독으로 내용상으로도 틀린내용을 제시해 합격이 사실상 힘든 답안입니다.

2. 또한 “제시된 정의에 따르면 공감은 타인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공감은 두 가지 조건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타인의 감정 혹은 신체적 상태를 인식하는 것과 두번째로, 그 인식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보는 것이다.” 답안 서술에서 이 부분은 중복 서술로써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공감에 대한 정의만으로도 충분한데, 이를 중복서술 함으로써 의미없는 재진술이 되고 있습니다.

3. 또한 “아킬레우스의 저 말은 뤼카온의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봤지만 이해는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에 공감한 것이다.” 여기서 아킬레우스는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뤼카온에 공감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4. 3문단부터는 사실상 첨삭을 하지 않겠습니다. 앞의 내용들이 틀린내용을 기반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기에, 오답을 계속 첨삭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이 답안은 제시문 독해와 발문 독해가 제대로 되지 않은 답안으로 보여집니다.

문제 2

1. 발문에 따르면 상상, 폭력, 주체라는 개념을 사용해 공감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시문 (가), (다)와 (라)를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즉 공감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개념과 제시문 (가), (다), (라)를 통해서 연결지어야 합니다.

2. 하지만 지금 답안에서는 개념들을 이용해 공감의 개념을 추출한 것이 아닌 첫 문단부터 공감은 폭력을 수반한다는 주장을 해버리고, 이에 대한 근거 또한 없습니다. 논리적 비약을 통한 주장이죠. 그리고, 이 비약된 주장을 통해 반대로 제시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발문에서 원하는 공감의 개념은 3개념과 3제시문을 이용해서 도출해 내는 것이지, 공감의 개념을 정해버리고 이에 따라 분석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밑의 답안들도 비약된 주장에 따른 분석으로 비약되었습니다.

3. 이 문제또한 발문에 대한 제대로된 이해가 부재한 답안작성으로써 1번과 2번 공통으로 답안작성시, 발문에 따른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